

茶戶里遺蹟 발굴조사의 성과

송 의 정*

I. 遺蹟과 조사의 개관

II. 유적 및 유구와 관련된 성과

III. 遺物과 관련된 성과

1. 청동기
2. 철기
3. 토기
4. 철기

IV. 문헌사와 관련된 성과

V. 맺음말

* 국립중앙박물관

I. 遺蹟과 조사의 개관

다호리유적¹⁾은 慶南 昌原市(舊 義昌郡) 東邑 茶戶里 232번지 일대에 해당하며, 茶戶里마을 뒤쪽에 자리 잡은 海拔 약 50m 정도의 구릉에서부터 海拔 약 10m인 얇은 계단식 논밭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기에 걸쳐 조성된 무덤들이 분포한다.

遺蹟의 동북쪽에는 동판저수지, 북쪽 약 1km 지점에는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주남저수지가 있으며, 그 주변은 넓은 평야지대이다. 이 저수지들과 평야는 북쪽으로 약 10km에 위치한 낙동강에 제방을 쌓기 전에는 대부분 갈대 등이 자라는 강변습지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수상공통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 무덤군의 분포와 구성을 살펴보면 다호리 마을 뒤쪽 구릉에는 加耶時代 古墳들이 분포하는데, 日帝強占期에 이미 盜掘의 피해를 입어 純金製 귀걸이를 비롯한 다수의 加耶土器類가 압수되어 國立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다. 발굴 조사된 무덤들은 원삼국기(서력기원 직전~기원후 약 300년까지)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土壙木棺墓 69기와 瓮棺묘 4기이며, 전체 遺蹟 중에서도 특히 해발 10~20m 사이의 낮은 지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일제강점기에 이미 토기류 46점, 구슬류 2련, 순금제이식 1쌍 등이 박물관에 수장된 이후 이 遺蹟의 존재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단지 1970년 문화재관리국이 발간한 『文化遺蹟總覽』에는 관리번호 1015-39-011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丘陵上의 가야고분들은 耕作으로 인해 封墳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削平되었고, 遺蹟의 존재와 전체적인 규모조차 정확히 인식되지 못한 형편이었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 周邊地域에서 盜掘이 심하게 恣行되어 이 일대의 丘陵地帶뿐만 아니라 주변 平地의 논밭에 이르기까지 盜掘의 피해를 극심하게 입어 遺蹟의 존재가 재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國立中央博物館은 遺蹟 保護와 考古學的 성격 구명을 위해 年次的인 發掘과 함께 이 일대 약 30,795평을 史蹟으로 지정·요청하였다(史蹟 第327號).

1988年 初부터 年次的인 發掘調査를 실시하여 1988年度에는 第1~3次調査, 이후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의 조사가 이루어져 모두 7次例의 調査가 실시되었으

1) 李健茂 外,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 『考古學誌』 第1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_____, 1991,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I」, 『考古學誌』 第3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_____, 1993,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II」, 『考古學誌』 第5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_____, 1995,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V」, 『考古學誌』 第7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며, 1997년에는 이 遺蹟을 관통하는 도로의 확장공사 때문에 기존도로의 하부와 다호리의 동쪽에 인접한 해발 약 20m의 구릉지를 救濟發掘하였다. 이 구제발굴에서는 다호리 1호분에 인접한 도로변에서 1기의 원삼국기 土壙木棺墓가 조사되었으며, 구릉지에서는 가야시대의 무덤이 다수 발굴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기 간	발 굴 구 역	담 당 자
1차 발굴 (1호 목관)	1988년 1월 21일~ 2월 1일	231번지 일대, 232번지 밭	정양모, 지건길, 이견무, 故한영희, 故이상수, 이영훈, 윤광진, 김정석
2차 발굴 (2호~14호)	1988년 3월 14일~ 4월 27일	231진, 232-2구, 232-3답, 233-3답, 234-3답, 237-7구	정양모, 지건길, 이견무, 안승모, 故한영희, 故이상수, 이영훈, 윤광진, 조현중, 안병찬, 김정완, 손명조, 김정석, 신대곤
3차 발굴 (15호~22호)	1988년 11월 1일~ 12월 10일	56답, 58답, 59답, 59답유, 60-2유, 233-3답, 234-1답	정양모, 지건길, 이견무, 이영훈, 서오선, 故이상수, 윤광진, 조현중, 신대곤, 김두철, 권오영, 안병찬
4차 발굴 (23호~29호)	1989년 3월 30일~ 5월 8일	56답, 60-2유, 233-1답, 234-1답,	정양모, 지건길, 이견무, 이영훈, 故이상수, 윤광진, 신대곤, 김두철, 김용민
5차 발굴 (30호~37호)	1990년 3월 28일~ 5월 7일	51-2답, 55-1답	이견무, 안승모, 서오선, 윤광진, 신대곤, 정성희, 김두철
6차 발굴 (38호~46호)	1992년 4월 15일~ 5월 15일	55-1답, 237-1답	이견무, 안승모, 서오선, 윤광진, 신대곤, 정성희, 김두철
7차 발굴 (47호~72호)	1992년 10월 28일~ 12월 31일	43유, 45진, 46-1묘, 47답, 52답, 232-1답, 232-2구, 232-3답	이견무, 안승모, 송의정, 정성희, 한봉규
8차 발굴	1997년 7월 1일~ 1998년 2월 16일	231번지 외 19필지, 신방리 355-6번지의 16필지	정양모, 故한영희, 송의정, 임학중, 정성희, 김재홍, 은화수, 장상훈, 홍진근, 오세연, 홍정희, 김성주, 안경숙

II. 유적 및 유구와 관련된 성과

조사 결과 원삼국기(변한 또는 가야 초기)에 해당하는 土壙木棺墓 69기와 옹관묘 4기 및 가야시대에 해당하는 대형 수혈식 석곽분토분 1기가 조사되었다. 토광묘가 분포하는 구릉 정상부 주변에는 일제강점기 때 이미 가야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신고된 바 있고, 구릉의 중북에는 지표채집된 토기편 등으로 보아 토광목곽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유구들에서 드러난 성과는 대략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시기에 따른 분묘 조성의 방향성 인식이다. 이와 같이 낮은 평지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무덤이 조영되기 시작하여 점차 높은 곳으로 이어지면서 고분군이 조성되는 경향이 밝혀짐으로 인해 이후 김해 양동리, 부산 복천동 등지에서도 이런 분포양상에 주목하여 유적 조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 또한 비교적 지하 수위가 높아 저습지에 가까운 지대에 무덤이 조영됨으로써 당시에 부장되었던 각종 목기가 대부분 잔존하였다. 이로 인해 변한지역 수장묘의 실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저습지 고고학의 단초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둘째, 이른바 요갱의 확인이다. 토광목관묘는 무덤의 방향이 대체로 等高線과 나란한 방향을 이루며, 토광폭과 유물의 출토위치 등으로 보아 枕向은 대체로 東枕으로 간주된다. 土壙의 규모는 길이 2~3m, 폭 0.5~1.5m 정도이고, 개답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원지형을 고려할 때 깊이는 1m 내외로 판단된다. 또한 1호를 비롯한 일부 무덤은 토광을 팔 때, 토광 중앙에 부장품을 넣은 바구니를 안치하기 위한 지름 60cm 정도의 얇은 구덩이를 마련한 것도 있다.

이와 같이 목관 하부에 부장용 구덩이를 마련한 예는 기존의 경주 조양동 38호²⁾가 대표적인 예였지만 당시에는 명확히 인식되지 못하였다. 이는 다호리유적의 조사결과에 의해 재조명되었으며, 최근에 조사된 성주 백전·예산리³⁾와 경주 덕천리⁴⁾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셋째, 봉토의 존재를 확인한 점이다. 토광목관묘 중 비교적 원지형이 남아 있었다고 보이는 제70호 무덤의 경우 발굴조사 결과 封土가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토광 중앙부의 어깨선 높이에서 기형의 2/3 정도가 복원되는 타날문 단경호가 출토되어 봉토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토광내부 목관의 부식에 의한 土壤陷沒과 토기의 출토위치로 미루어 볼 때, 이 토기는 봉토 내에 매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정한 규모의 봉토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國立慶州博物館, 2001, 『慶州 朝陽洞遺蹟Ⅱ-사진-』

_____, 2003, 『慶州 朝陽洞遺蹟Ⅱ-본문-』

3) (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5, 『星州 栢田 禮山里 土地區劃整理事業地區內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4) 이석범·이나영, 2006, 『慶州 德泉里遺蹟』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선사 및 고대 초기 묘제에 있어서 봉토의 존재는 북한의 강서 태성리 토광묘 발굴⁵⁾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남한에서는 부여 송국리 석관묘 주변의 목개 토광묘 보고에서 토층으로 그 존재를 추론한 바 있었다. 또한 창원 덕천리 1호 고인돌⁶⁾의 경우 상석이 주변보다 높은 성토 지형에 위치하여 분명히 의도적으로 시설된 봉토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최근 각지의 지석묘 발굴조사에서 봉토의 존재 가능성이 종종 제기되고 있으며, 춘천 천전리⁷⁾와 홍천 철정리⁸⁾ 등지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구석관묘나 마한 지역의 주구묘에서도 주구의 존재를 통해 충분히 봉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다호리에서는 70호 한 예에 불과하지만, 바로 인접한 시기에 해당하는 경주 조양동 5호묘의 토기 부장양상과 관련해보면, 그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넷째, 통나무관의 실체를 확인한 점이다. 1호분에서 출토된 木棺은 지름 80cm 정도의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 안쪽을 구유모양으로 파내 관으로 사용하였으며, 아래위를 고정시키기 위해 관의 양 끝에 구멍을 뚫어 굵은 나무못으로 고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木棺은 외부 充墳土의 특징으로 보아 板材를 이용한 것도 있었다고 추정된다. 木棺의 규모는 흔적으로 보아 길이 1.5~2.5m, 폭 60~80cm 정도에 이른다.

이런 목관의 존재는 이후 한국고고학에 있어서 부여 송국리⁹⁾, 공주 남산리¹⁰⁾ 및 창원 덕천리의 석개 또는 목개 토광묘에서 목관의 존재를 유추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런 통나무관의 분포는 중국 남서부를 넘어 현재의 베트남 북부의 청동기문화인 동선문화에서도 보이는 점은 우리가 연구의 지평을 보다 넓게 가질 필요성을 제시한다.

5) 과학원출판사, 1959, 『태성리 고분군 발굴 보고』 유적 발굴 보고 제5집

6) 李相吉, 1993, 『昌原 德川里遺蹟 發掘調査 報告』 『삼한의 고고학』 第17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7) 沈載淵·金權中·李枝賢, 2004, 『春川 泉田里遺蹟』 『통일신라시대고고학』 제28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8) 김권중·박용근, 2007, 『洪川 哲亭里Ⅱ遺蹟』 『국가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9) 국립중앙박물관, 1991, 『松菊里Ⅳ』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3책
國立公州博物館, 1993, 『松菊里Ⅴ』

10) 國立公州博物館·(주)금오건설, 2001, 『公州 南山里 墳墓群』

Ⅲ. 遺物과 관련된 성과

1. 청동기

먼저 가장 큰 성과는 한국식동검의 전체적인 조립구조에 대한 명확한 표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銅劍은 옷칠을 한 목제 칼집과 손잡이, 盤部, 靑銅劍把頭飾을 갖추고 있어 한국식동검이 원래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사용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劍把頭飾은 대부분 땅콩껍질을 반으로 나눈 형태이고, 표면에 좁쌀모양의 돌기가 많이 붙어 있으며, 철검에 부착되기도 한다. 69호분에서는 복숭아씨 모양의 특이한 형태도 출토된 바 있는데 유사한 유물이 일본 대마도에서도 출토되었다. 銅矛는 날이 길고 넓은 中廣形과 아주 짧지만 耳環이 붙은 형태로 모두 후기 형식에 해당하며, 중국제 청동기로 星雲紋鏡과 五銖錢, 琴形帶鉤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성운문경을 통해 유적의 연대를 가늠할 수 있었으며, 토기 편년에도 큰 단서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의 청동기문화를 모두 10기로 나누고, 이 가운데 다호리 유적의 연대와 가까운 7期 이후에 대해서 유물의 조합상 가운데 전한경을 바탕으로 편년하는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철기

철검은 한국식동검과 비슷한 크기로 날의 단면은 마름모꼴이며, 스페부분에는 자루에 끼울 때 잘 빠지지 않도록 실을 감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철모는 대부분 날의 단면이 마름모꼴이고 길이가 30cm 전후이지만, 1호분에서는 길이 40cm가 넘고 단면이 편육각형이며, 표면에 옷칠을 한 예도 발견되었다.

철제도끼는 형태로 보아 板狀鐵斧, 方柱狀鐵斧, 有銚式鍛造鐵斧, 有銚式鑄造鐵斧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주조철부는 두 개씩 끈으로 묶은 예가 있고, 내부에 鑄物砂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사용보다는 交易의 媒介手段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삼국지 변진조의 기록에 대한 방증자료로 삼을 수 있다.

농공구로는 조각칼의 역할을 하는 鐵鉞, 끌, 낫, 따비, 環頭刀子 등이 있으며, 환두도자 중 철기 칼집에 들은 것은 중국의 예에 비추어 목간 등에 쓴 글자를 깎아내 지우기 위한 書刀로 추정된다.

말을 제어하기 위한 ‘S’자형 또는 고사리 모양 鏡板附轡, 말띠를 연결하던 철환 등을 통해 말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철촉은 逆刺式으로 살대 부착 시 감았던 나무껍질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목제품으로는 처음에 길이 170cm 정도의 장궁의 예만 보고되었으나 80cm 전후의 단궁도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64호 출토 철광석의 분석결과는 이미 보고된 바 있으나, 그 의미에 대해 언급한 글이나 후속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이 철광석은 미량 원소 중 구리의 양이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의 철광은 부산에서 내륙방향으로 Fe-Cu대, Cu-Pb-Zn대, W-Mo대가 차례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철광석의 경우에도 양양, 연천, 예미광은 구리가 0.001-0.003이하인 반면 울산광의 경우 0.01이하로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 경남지역의 광산에서 채광된 것으로 보인다.

3. 토기

토기는 打捺文短頸壺, 牛角形把手附長頸壺, 把手附長胴甕, 주머니호 등이 대표적이며, 수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高杯, 長頸壺, 粘土帶土器, 소형완, 소형직구호, 원통형토기 등도 보고되었다. 이런 토기들은 대부분 영남지방의 기존 연구에 의하면 모두 고식 와질토기에 해당하며, 신식 와질토기인 노형토기나 대부단경호의 예가 없는 점이 특징이다. 이 토기들은 형식분류를 통해 상대편년 작업이 심화되었으며, 여러 단계의 획기가 설정되었다. 무엇보다도 조양동 38호묘와 다호리 1호묘의 연대가 기원전 1세기 후반에 비정됨에 따라 고식 와질토기의 출발점이 상당히 분명해졌다. 한편 토기 중 타날문이 가해진 단지들과 구연부의 형태가 정연하고 비교적 단단하며, 회색을 띤 소형완이나 원통형토기 등은 확실히 이 시기에 들어 새로운 제작기술이 도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검은색을 띤 일부 토기들은 보존과학적 검증을 통해 방수를 위한 옷칠이 전면에 베풀어졌음이 드러났다.

4. 철기

다호리유적 출토 철기의 분석 결과는 이후 상세히 보고되겠지만 국내의 광주 신창동,

경주 사라리 등지의 시료와 비교할 때 대부분 바탕칠 없이 목기 표면에 바로 옷칠을 한 것으로 동일한 기술적 특징을 보인다. 연대가 비슷한 낙랑 칠기가 골분, 토분 등을 이용한 바탕칠이 있는 점과 구별되므로 한대의 칠 기술과는 다른 전통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일본의 야요이시대 유적 출토 칠기의 분석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삼국시대 이후의 칠기에는 바탕칠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낙랑의 영향을 상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보존처리 과정에서 기존의 죽태칠기 바구니로 보고된 것이 초본류를 바탕으로 한 칠바구니로 밝혀졌으며, 예보 단계이지만 가죽제품에 칠해진 예도 있어 추후 분석 및 연구의 진행에 따라 더욱 다양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자연유물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발굴조사 당시 목관 밑에 뿌려진 밤의 존재로 인하여 두형칠기 위에 눌러 붙은 식물 유체도 밤일 것으로 잠정 추정되었으나, 동정 결과 감으로 판정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감의 원산지가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반도 남부가 중심지임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학제 간 공동연구가 미흡함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차 보고 시 씨앗으로 보고된 것은 울무로 확인되었다. 울무는 원산지가 동남아로, 기록에 따르면 지금의 베트남에서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중국의 기록보다 전래시기가 상회하므로 당시 문화 교류의 역동성이 현대인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연구의 방향성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IV. 문헌사와 관련된 성과

최근까지 초기철기문화와 관련하여 삼한의 성립시기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이 문헌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초기철기시대와 삼한을 관련짓는 견해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초기철기시대의 문화 복합체(Assemblage)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통일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그 시기에 대한 주장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다호리유적 발굴 성과로 인해 최소 기원전 1세기경 문화적 실체를 가진 변진한의 성립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문헌사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그것이 문화적 실체로 설명되지는 못하였다. 청동제 의기와 다뉴조문경 및 점토대토기로 대표되는 재지적 전통사회가 기존의 한국식동검의 전통은 최소한

유지하면서 새로운 토기 제작기술을 흡수하고, 다량의 철기와 중국제 동경 및 교역과 관련된 외래적 성격이 유입된 다호리형 유물복합체를 가진 정치 문화 집단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타당한 해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런 현상은 한반도 나머지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중남부에서 소량의 철제품과 한국식 청동기 및 점토대토기를 공통 표지로 하는 문화상을 가진 사회를 문헌사적 연구 결과와 연계시키는 작업은 더욱 심도 있는 연구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삼국지의 韓 관련기사에서 韓과 三韓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다호리유적은 한반도 남부의 진국 또는 한 사회와 現在까지 空白期로 남아 있는 三韓, 즉 原三國期 初期로의 轉移過程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특히 발굴을 통해 이 시기 주요 墓制가 木棺墓임이 밝혀졌으며 거의 원형을 잃지 않은 구유형 木棺과 함께 당시까지 거의 출토된 바가 없던 각종 철기류 및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韓國式銅劍의 옷칠된 손잡이와 칼집 등 각종 附屬具가 온전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실로 우리 학계에서 고대하던 물질적 자료들이 확인됨으로써 당시의 文化相을 밝히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80년대 考古學的 發掘 중 가장 큰 성과를 얻은 遺蹟의 하나로 문헌사적으로도 불분명하였던 기원전후의 역사에 서광을 비춰줄 것으로 기대된다.